

매수 심리 '꽝꽝'...지역 '전월세 거래' 매매보다 3배 많다

국토교통부 5월 주택통계

전월세 9천764건 vs 매매 3천631건
광주지역 미분양 주택 3년새 6배 '경중'
'악성 미분양' 4년새 광주 20배·전남 4배 ↑

주택 가격에 대한 불확실성에 따른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광주·전남지역에서 전월세 거래가 매매보다 3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미분양 물량이 좀처럼 해소 기미를 보이지 않고 수도권과는 달리 투자 대비 이익 효과

낮아 새 정부의 지방에 대한 특단의 지원 대책 없이는 광주·전남 주택 경기 활성화는 요원해 보인다.

◇전월세 거래, 매매보다 3배 많아=30일 국토교통부의 5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5월 광주·전남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각각 4천819건, 4천945건 등 총 9천764건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 매매거래량 3천631건(1천505건·2천126건) 대비 3배 가량 높은 수치다.

5월 광주 전월세 거래량은 전월(4천523건) 대비 6.5%, 전년동월(4천430건) 대비 8.8% 증가했다. 매매거래량은 전월(1천703건) 대비 11.6%, 전년동월(1천733건) 대비 13.2% 감소했다.

5월 전남 전월세 거래량은 전월(4천186건) 대비 18.1%, 전년동월(3천622건) 대비 35.0% 증가했다.

매매거래량은 전월(2천126건) 대비 12.7%, 전년동월(2천955건) 대비 9.7% 감소했다.

◇광주 미분양 주택 3년새 6배 '경중'=광주지역 미분양 주택은 지난 2021년 말 27호에 불과했지만, 2022년 291호, 2023년 596호, 지난해 1천242호로 3년 사이 6배나 급증했다.

이후 올해 4월 1천238호였던 미분양 물량은 한 달 후 5월에 또 똑같이 남아있다.

이 가운데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2021년 27호에서 올해 5월 419건으로 4

년 사이 20배 늘었다.

전남의 미분양 물량은 2021년 2천163호, 2022년 12월 3천29호, 2023년 12월 3천618호, 지난해 12월 3천598호, 올해 4월 3천815호, 5월 3천786호 등으로 최근 3년간 정체 상태로 나타났다.

준공 후 미분양은 2021년 437호에서 올해 5월 2천351호로 5배 가량 급증했다.

◇광주 주택 착공·분양·준공 '시계 제로'=5월 광주지역 주택 착공·분양·준공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나 다름없다.

광주 주택 착공은 6호, 분양 320호, 준공 7호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2월 1호, 1호, 1호로 3년 사이 6배나 급증했다.

전남은 주택 착공 233호, 준공 598호로 광주보

다는 양호한 상태였지만 분양은 한 호도 없었다. 올해 1월부터 전남 공동주택 분양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관계자는 "지방은 수도권과 달리 주택 가격의 변동이 크지 않아 매매에 대한 메리트가 없어 투자보다는 실거주를 위한 전월세에 대한 거래가 훨씬 많다"며 "미분양 물량 해소 정제도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주택 경기가 기지개를 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재만 기자

광주 제조업체 3분기 전망 '흐림'

BSI 전분기보다 10p 하락한 84

내수 부진·美 관세 정책 악재 영향

광주지역 제조업체들의 경기 전망이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3분기에도 침체가 뚜렷할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광주상공회의소는 30일 "광주지역 133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3분기 기업 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 이전 분기(92)보다 5p 하락한 '8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정치 안정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존재하지만, 내수 부진과 물가 상승, 미국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 등 복합적 대내외 악재가 지속되면서 기업 체감 경기는 오히려 더욱 위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BSI는 100 이상이면 다음 분기 경기가 이번

분기보다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경영향목별로는 매출액(94→84), 영업이익(83→75), 설비투자(94→92), 자금사정(76→72) 전 항목이 하락세를 보이며, 경기 부진 흐름이 지속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듯 응답기업의 63.9%는 올해 상반기 매출이 목표치보다 하회했다고 응답했고 투자 실적 또한 54.9%가 계획보다 낮았다고 조사돼 매출 부진이 투자 위축으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상반기 기업 경영과 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대내외요인으로는 '내수 수요 부진'이 65.4%로 가장 높았으며 대외 요인으로는 '해외 수요 부진(32.3%)'과 '원자재가 상승(30.8%)'이 주된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전자제품 통신(95), 자동차·부품(78), 기계·장비(85), 철강·금속(83), 화학·고무

플라스틱(45), 식음료(91) 등 대부분 업종에서 체감경기 악화가 전망됐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중견기업(108→86)은 지난 분기(108) 기준치를 겨우 회복했지만 내수 시장 침체와 해외 시장의 불안정,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변동성 증가 등의 영향으로 다시 악화하는 것으로 예상했다. 중소기업(91→87) 또한 지난 분기 대비 4p 하락하면서 여전히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규모별로는 수출기업(97→89), 내수기업(91→87) 모두 하락했는데 불투명한 세계 경제 및 미국 관세 정책에 따른 변동성 확대, 경기 불황 지속 등으로 인해 2025년 3분기의 부정적인 전망은 지속되고 있다.

광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경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으나 여전히 체감 경기 회복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 제조업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내수 진작, 원가 부담 완화, 수출 여건 개선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이 시급한 시점이다"고 전했다.

/인태호 기자



코스피 3거래일만에 상승해 3,070대 마감 30일 서울 증주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5.76(0.52%) 오른 3,071.70로 마감했다. /연합뉴스

광주은행 'TenTen양궁적금' 가입행사 개최

세계양궁선수권·광주관광 연계

국가대표 안산 선수 참여

광주은행은 30일 "광주은행 영업부에서 대한양궁협회 장영술 부회장과 2020도쿄올림픽 3관왕 안산 선수가 자리를 빛낸 가운데 'TenTen양궁적금' 가입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입행사는 오는 2025년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양궁선수권대회와 '2025광주방문의 해'를 널리 알리고 지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은행은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지역 스포츠 축제를 연계한 금융상품



을 통해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행사에 참석한 장영술 부회장과 안산 선수는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 'TenTen양궁적금'을 가입했으며 광주은행의 광주세계양궁선수권대회 흥

보 노력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사진>

특히 안산 선수는 "양궁의 도시 광주에서 이렇게 특별한 금융상품이 출시돼 매우 뜻깊다"며 "많은 분들이 광주를 찾고 대화도 함께 응원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TenTen양궁적금'은 광주세계양궁선수권대회와 연계한 상품으로 지난 6월5일부터 8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광주은행 TenTen양궁단 선수의 경기 실적에 따라 최고 연 0.60%p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고 '2025광주방문의 해'를 기념해 광주 주요 관광지 방문 위치인 증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 최고 연 0.70%p의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이는 양궁대회 응원과 광주 여행, 금융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이색 상품으로 지역민은 물론 전국 고객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정은솔 기자

스마트인재개발원, AI·헬스케어 융합 인재 주력

'K-디지털 트레이닝' 장기과정 최종 선정

스마트인재개발원이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 주관하는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에 최종 선정됐다.

30일 스마트인재개발원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전국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K-디지털 트레이닝'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실무에 강한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정부 주도의 대표 훈련사업이다.

이 중 장기과정은 약 6개월간 집중적으로 운영되며 현장 프로젝트 중심의 실무 교육을 통해 훈련생들이 수료 즉시 산업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수준의 역량을 갖추도록 설계됐다.

스마트인재개발원은 이번 과정에서 광주시의 전략산업인 헬스케어와 AI 기술을 융합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자'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훈련 과정은 Python 기반 인공지능 모델 학습부터, 웹 서비스 개발, 클라우드 환경에 배포 및 운영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됐으며 참여 기업들의 수요를 직접 반영해 최신 산업 동향과 현장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 내용을 담았다.

의료 및 헬스케어 데이터를 활용한 AI 응용 서비스 개발 및 서비스화(MLOps) 역량을 갖춘 전문 인재를 집중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광주 지역 내 AI 헬스케어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태호 기자